

전국계우회 연합회, 산란계 10% 감산운동 전개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김종현)에서는 지난 1월 7일 농수산부에 전달한 대정부건의서를 통해 1) 계란의 생산조절, 2) 계란의 유통구조의 체계화, 3) 소득표준을인하 4)노계

의 이용도 향상, 5) 사료가격인상보류를 건의한데 이어 농수산부와 합의하여 전국 양계업자에게 산란계 10%감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호소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전국 양계동업자 여러분!

과거로부터 축산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양계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슬기로운 지혜를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양계인 스스로가 낙후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 전양계인이 일치단결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끝내 양계인의 불굴의 투지와 개척정신은 축산불모지를 가꾸어 오늘날과 같은 축산 중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양계산업은 축산분야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는 모두 우리 양계업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양계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오히려 양계산물의 생산과잉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란가의 폭락을 유발시켜 양계업계는 극심한 불황속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의 계란 생산원가는 개당 32원을 상회하는 선이었지만 시장 출고가는 사료비조차 제대로 충당하기 힘든 가격으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개당 20원을 밑도는 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단행된 사료가격의 대폭 인상과 이어 수반될 제반 생산비의 양등은 생산원가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 분명하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적인 인플레이에 대비키 위해 취해진 긴축정책과 소비절약의 영향으로 국내의 경기는 자연히 침체현상을 빚게될 것이며, 아직도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축산물 소비량은 필연적으로 더운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의 연속적인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의 추세는 더더욱 심화되어 수수방관할 경

우 제2의 양계파동을 몰고 오지 않으리라 누구도 단언하지 못할 급박한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직시하고, 우리 양계업자는 스스로 각성하여 양계불황의 가장 큰 요인인 양계산물 과잉생산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계업자들이 이에대한 타개책을 강구치 않는다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임은 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로 명실공히 가격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생산조절 뿐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조절을 과감히 시행하여 과잉생산에서 오는 불황으로부터 탈피하여 적절한 이윤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경기상승의기미만 보여도 雨後竹筍格으로 모두가 무계획적인 육추를 시작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견지에서조차 막대한 손실일뿐 아니라 우리 생산자에게는 자멸의 길이나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차체에 전국의 양계업자들은 각자 자신부터 출산하여 양계산물 감산운동을 실시하고 이운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시켜 최소한 현물량에서 10% 감산을 조속히 단행해야만 지금과같은 불황의 국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양계업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초월하여 일치단결하고,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되살려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양계인 여러분! 지금 이 시각부터 자발적으로 양계산물 10% 감산운동에 박차를 가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1980년 1월

전국계우회 연합회

회장:김종현